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위한 '주거실태조사'

전주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위해 10월 7일까지 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 조사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 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조사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제2기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시민의 주거실태와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조사하는 '2022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문조사원이 전주시 거주하는 3000가구(표본선정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 특성과 주택 유형, 가구의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의 특성 등을 설문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가 맡는다.

특히,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제2기 전주시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된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의해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는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주거복지 및 주택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전략과제 도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제시 등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오는 12월 말 시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2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구 표본추출로 조사 대상 표본규모 3000가구를 확정했으며, 조사표 승인 등 호남지방 통계청에 통계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또 명확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인구 고령화와 가구분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전세의 월세화 등 주택시장 변동(임차가구의 안정성) △공공임대주택 거주유구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목표 등 주요 조사 항목을 고려해 조사표도 확정했다.

정용욱 시 주거복지과장은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되신 시민들께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10월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동지를 틈 전주혁신창업허브는 국비 13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 2200㎡ 부지에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로 지어진 전주 최초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이곳은 창업기업과 초기기업 등 52개 업체가 입주했고, 입주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등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갖춰 전주 미래성장산업의 요람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혁신창업허브를 포함한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총 238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총 540억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끊임없이 도전

하고, 행정은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에 힘써야 지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 전주첨단벤처단지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벤처단지 활성화·창업기업 성장 위한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 팔복동 전주혁신창업허브 방문 13개 입주기업 대표들과 미래신성장산업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가져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지역 최초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를 방문해 (주)씨디엘(대표 조성우) 등 13개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미래신성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벤처단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인력 공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인재 채용시 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을 요구했다. 또, 드론과 탄소 등 미래먹거리산업 기반 마련과 벤처단지 환경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지역대학 졸업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를 방문해 (주)씨디엘 등 13개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미래신성장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10월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동지를 틈 전주혁신창업허브는 국비 13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 2200㎡ 부지에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로 지어진 전주 최초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이곳은 창업기업과 초기기업 등 52개 업체가 입주했고, 입주공간과 회의

실, 교육실 등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갖춰 전주 미래성장산업의 요람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혁신창업허브를 포함한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총 238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총 540억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끊임없이 도전

하고, 행정은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에 힘써야 지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 전주첨단벤처단지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보건소,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오는 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65세 이상

노인 △만50~64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기간과 장소를 구분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생후 6개월부터 만13세 사이 어

린아와 임신부는 오는 10월 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빠른 접종 개시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어 △75세 이상(10월 12일부터) △70세 이상인(10월 17일) △65세 이상(10월 20일) 등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구분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무료 접종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만50~64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전주시보건소(완산, 덕진 예방접종실)에서 접종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노송광장, '추억의 놀이터'로 변신

전주시, 24일 다양한 체험·프리마켓 등 시민장터 개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깊어가는 가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나눔과 소통의 생활문화마당인 '제1회 전주 시민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밝혔다.

이날 시민장터에서는 노송광장을 찾는 어린이 등 가족 단위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억의 놀이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수공예 체험과 놀거리, 살 거리가 제공된다.

먼저 판매 장터에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디저트·음료 먹거리 등 9개 팀이 참여하며, 이들은 이날 시민장터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전주시 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노송광장에서는 아크릴무드등과 가족 팔찌 등 7가지 수공예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추억의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문방구와 놀이터가 운영된다.

노송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민장터 운영본부에서 돗자리와 보드게임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이날 시민장터 한 가운데에서는 미술쇼와 풍선공연을 펼쳐져 장터 분위기를 돋우게 된다.

이에 대해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날씨 좋은 가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번 프리마켓을 찾아 노송광장의 특색있는 상품과 다양한 볼거리를 누리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송광장을 문화예술체험과 즐거운 소풍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전주 시민장터를 열고 있으며, 오는 10월 장터에서는 '할러윈 데이'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하반기 화학사고 대비 구조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19일 소방서에서 119구조대원 대상으로 방사는 피폭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 하반기 화학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생화학 관련사고 대비 전문지식 습득과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상황에 맞추어 화학보호복 착용하고 인명구조 기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훈련개요 설명

및 안전사고방지 교육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이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활동요령 △유해화학물질 인명구조 요령 △사태에 따른 필요장비 구분 및 장비소개 △화학물질 중화법 훈련 △방사선 측정기 사용법 △오염된 화학보호복 제독법 및 사후 관리법 등이다.

김정수 서장은 "체계적이고 반복적 훈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종 화학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방문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가 19일 환경 분야 최대 현안 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찾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내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2026년 9월 이후의 시설 설비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편

익시설인 패럴리랜드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자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며 "꼼꼼한 현장 확인과 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